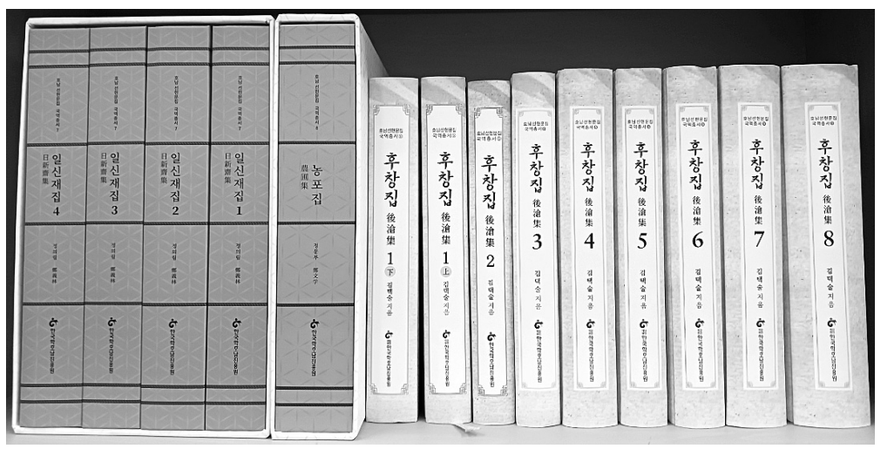
호남 선현문집 완역 총서 나왔다

의병 참여 정의림 '일신재집'
항일운동 김택술 '후창집'
임란 활약 정문부 '농포집'
한국학호남진흥원 국역 발간
23·29일·7월13일 학술대회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완역 출간한 '일신재집'·'후창집'·'농포집'.

화순 출신 정의림(1845~1910)은 노사 기정진의 3대 제자로 노사학 계승 및 위정척사사상을 실천한 선비다. 을미사변 때 의병에 참여한 인물로 '일신재집'을 남겼다.

정읍 출신 김택술(1884~1954)은 간재 전우의 수제자로 도학과 문장이 빼어났으며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에 참여했다. '후창집'은 그의 학문관, 역사관, 사상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저서다.

기축옥사부터 이괄의 난 등 역사적 쟁점 시기에 일평생을 활동한 정문부(1565~1624)는 역사의 변곡점인 임진왜란 때 맹활약한 인물로 '농포집'을 남겼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호남진흥원)은 최근 일신재 정의림의 '일신재집', 후창 김택술의 '후창집', 농포 정문부의 '농포집'을 완역 출간했다고 밝혔다.

'호남 선현문집 국역 총서' 시리즈로 출간된 이번 책들은 지역문화 자원 구축을 위한 고전의 현대화 일환으로 기획됐다.

정의림의 '일신재집'에는 그의 학문과 사상이 담겨 있으며 무엇보다 호남 지역의 누정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후창집'은 다양한 역사적 명소에 대하여 저술한 작품이 다수 수록돼 역사 디지털 복원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다.

'남쪽에는 이순신, 북쪽에는 정문부'라고 할 정도로 임진왜란 때 활약상을 보였던 정문부의 '농포집'을 통해서는 그의 문학을 비롯해 사상, 철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본인 '농포집'(왼쪽), '후창집'. 〈한국학호남진흥원 제공〉

호남진흥원은 국역서 발간 3종에 대해 호남문헌 완역 기념 심층연구 학술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3일(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후창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29일(오후 1시)에는 경상남도 진주향교에서 '농포 정문부의 학문과 임진왜란 위상'이라는 주제 하에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은 7월 13일(오후 1시)은 화순문화원에서 '일신재 정의림의 학문과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펼쳐진다.

천득염 원장은 "이번 국역을 토대로 호남학 연구의 지평을 확산하고 고전을 통한 원소스 멀티유즈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남진흥원은 앞으로도 멸실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 민간기록 문화유산을 조사·수집 및 보존·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연구성과를 집적하고, 호남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팝, 빌보드서 '승승장구'

BTS 글로벌 차트 재진입…피프티피프티·아이브 등 순위 올라

걸그룹 '르세라핌'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의 데이터가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반영되면서 이번 주 해당 차트에서 K팝 가수의 곡이 대거 역주행하거나 신규 진입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히트곡 '큐피드'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12주 연속 진입하면서 K팝 걸그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3일(현지 시간) 공개된 빌보드 '글로벌 200' 최신 차트에 따르면 기존에 차트에 머무르던 (여자)아이들, 아이브, 르세라핌, 지수, 에스파, 뉴진스 등이 모두 전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여자)아이들은 '퀸카'로 지난주 35위보다 14계단 오른 21위에 올랐고, 아이브는 '아이엠'으로 35계단 오른 47위를 기록했다. 전주까지 차트 밖으로 밀려났던 아이브의 또 다른 곡 '키치'는 이번 주 187위로 재진입에 성공했다.

르세라핌은 '언포기븐'과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로 각각 62위와 82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곡 '꽃'(65위), 에스파 '스파이시'(74위), 세븐틴 '손오공'(90위) 등이 모두 순위 역주행을 기록했다.

이 차트에 20주 넘게 진입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도 'OMG'(93위)와 '디토'(153위)로 역주행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순위를 집계하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이 이어졌다.

이 차트에서 9주 연속 상위 10위권을 지키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3위)를 필두로 르세라핌의 '언포기븐'과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는 각각 30위와 46위로 전주보다 순위가 올랐고, 스트레이 키즈의 정규 3집 타이틀곡 '특'은 15위로 새로 진입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멤버 솔로곡 등으로 활약을 이어갔다.

방탄소년단이 2020년에 발매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는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 171위로 깜짝 재진입했다. 지민의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는 '글로벌 200'에서 전주보다 14계단 상승한 52위에 올랐으며, 지민이 코닥 블랙, NLE 초파 등과 협업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앤젤 파트1'은 56위를 기록했다. '앤젤 파트1'은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3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남도·시·노래·환경…인문학과 놀다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 26~30일 인문독서아카데미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관장 이지엽)이 향기 나는 인문학 강연을 연다.

'인문학과 놀다'를 주제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오후 2시부터 4기까지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여는 것.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인문학 강연에는 한시, 역사학, 생태, 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의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먼저 26일에는 이승하 중앙대 교수가 '진도를 노래한 한시'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27일에는 이세영 한신대 교수가 '역사학에서의 해석과 담론의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환경 위기와 맞물려 환경과 생태의 소중함을 환기하는 강의도 있다. 28일에는 박영주 강릉원주대 교수가 '우리시대의 화두 인간, 자연, 생태'를 모티브로 강연하며 29일에는 최한선 도립대교수가 '고전시가와 호남 한시의 미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30일에는 문학평론가인 유성호〈사진〉 한양대 교수가 '남도의 노래, 남도의 사랑'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독서아카데미회원을 모집 중이며 외지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에그린 문학의 집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할 예정이다.(선착순 20명)

한편 진도에 있는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은 지난 2021년 개관했으며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다.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과 여귀산 미술관, 진도수석박물관은 문학관과 더불어 시·서·화·창·무가 연계된 예술교육과 예술의 향유 기회를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의 061-542-10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은숙 작가, 로코로 돌아온다

김우빈·수지 캐스팅…판타지 '다 이루어질지니' 내년 방송

김우빈

수지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가 새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로 돌아온다.

제작사 화앤담픽쳐스는 "총 12부작인 김 작가의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를 내년 중 방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감정이 지나치게 풍부한 램프의 정령 지니와 그런 지니를 꺼내 준 한 여자가 세 가지 소원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를 담는다.

분노 폭발과 전의 상실을 오락가락하는 지니 역에는 김우빈이, 지니를 형벌에서 꺼내준 가영 역에는 수지가 나선다.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두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 지 7년 만이다.

영화 '스물'(2015), '극한직업'(2019), 드라마 '멜로가 체질'(2019) 등을 만든 이병헌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제작사는 "김은숙 작가의 스토리라인과 유쾌한 상상력으로 그려낼 이병헌 감독의 영상, 김우빈, 수지의 환상적 케미 삼박자가 갖춰졌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